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류외자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4:1-1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그 영광의 광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25일	7월 2일
장헬렌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1만 킬로미터의 은혜

얼마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책 한권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고 온갖 고문과 감옥을 넘나들며 30여년간 혼자서 4000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한 한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최근 베스트 셀러이기도 해서 한번 읽어봐야지 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목사님은 일명 슈퍼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해 내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치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상황과 탈북자들의 생생한 삶을 전달하고 있는지 태어나 처음 알게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얻고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나름 북한 선교와 구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자에게 이 슈퍼맨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작가님, 매주 탈북인 학교에서 팬들이랑 인문학 교육 봉사 활동도 하시고 대형 NGO 통해서 북한에 빵 공장 세우는 프로젝트도 시도하시고, 또 북한 아이들도 일대일 아동 결연으로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제가 탈북인 사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가님, 혹시 ‘진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 선교와 구제 활동들이 사실상 형식과 명목에 불과하고 진짜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작가는 이 슈퍼맨 목사와 동행하며 그의 삶을 생생히 엿보고 그것을 책으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면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슈퍼맨 목사의 삶을 함께 추적해 가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